시 론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에 앞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내 오리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찾아온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시한 육류소비패턴의 변화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사육규모면에서 국내 오리업은 지난 98년말 현재 사육수수가 3백16만7천수로 농가호당 사육수수는 3백59수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개방원년인 91년도에 비해 사육수수는 217%, 농가호당 사육수수는 359%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매년 오리고기 수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육량 역시 이같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매년 오리고기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고 최종 소비처에서 신선한 오리고기를 선호하는 구매습성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국산 오리고기를 유통하는 상당부분의 유통업자들이 통오리의 경우 국내산오리고기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같은 근거를 신선한 고기를 원하는 요식업소의 구매습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이후 통계를 보면 오리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개방이후 587% 증가한데 반하여 국내 사육량은 같은기간동안 186% 증가하는데 그쳐 국내 오리고기 전체 시장중 국산시장에 비해 수입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국내 오리고기 전체시장의 수입육비중이 커지는 주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산육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싸다는 것과 둘째, 오리고기를 유통하는 업자 측면에서 유통이 손쉬우면서 마진이 좋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이 두지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국내산 오리고기 시장 규모를 늘리는 길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위해 해결해야할 과제 역시 사육측면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생산비 절감,유통측면에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위한 구조개선등 원론적인 대책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같은 원칙적인 개선방안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역시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 의해 하나둘 풀어나가야 하는 오리업의 숙원과제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오리업은 수입개방원년아닌 원년을 맞는 기로에 서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너무나 잘알고 있는바와같이 국내 수입육의 90%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산 오리고기의 수입재개가

눈앞에 와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오리고기가 들어오지 못한 지난해 국내 오리업이 95년이후 3년만에 호황을 구가한 점을 들지않더라도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는 국내 오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같은 중요성에 비춰 본회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를 최대한 연장키 위해 백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농림부 역시 사육농가보호를 위해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한중간 무역역조 개선과 그 일환으로 가금육수입재개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수입중지 조치를 연장시키는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본회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조치의 연장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수입이 재개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무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업계의 요구사항을 건의키 위한 준비가 진행중에 있다.

오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같은 대책들이 수립된다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언제까지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가 언제든 우리 오리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내부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리업 내부의 대책중에 가장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오리업계의 단합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부화업계가 선봉에 나서야한다.

이는 오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부화업이기 때문이며 국내 오리업의 경쟁력 역시 부화장에서 출발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화업계가 선봉에 서기 위한 전제조건은 먼저 업계 내부적인 화합과 거시적인 안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을 베풀려는 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위한 실천방안으로 현재 협회에 존재하고 있는 부화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제안하며 부화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또한 촉구한다.

이를 전제로 업계의 힘이 모아지면 과거보다는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오리고기에 무방비로 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피해역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밖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산 오리고기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국산육 소비시장 자체를 지금보다 크게 확대 시키는 일과 그동안 잘못 유통되던 수입육의 불법유통 또한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부화업계의 선봉으로 사육,유통업계가 동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우리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